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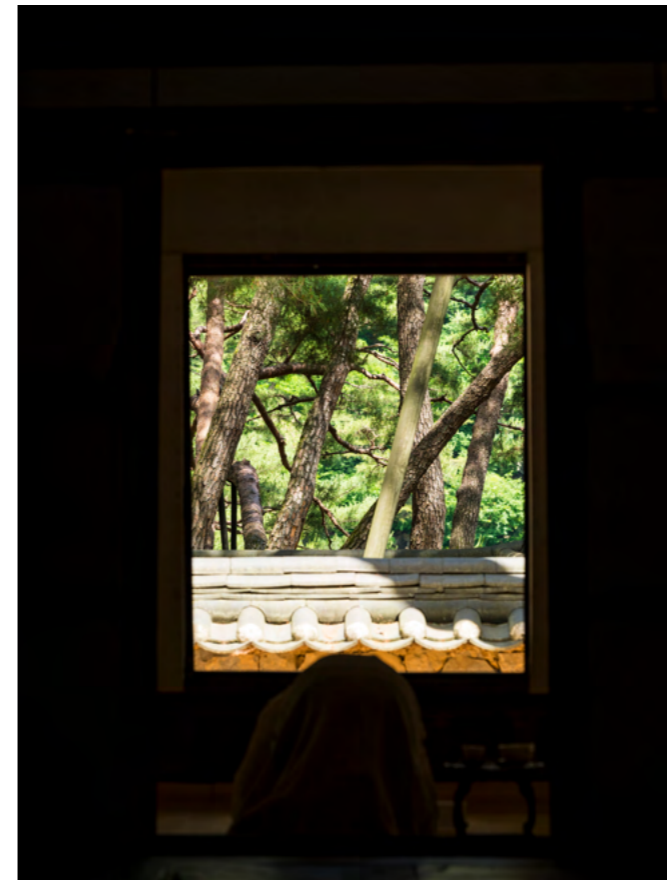
##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 충절의 고장 영월, “산림도 관심과 손길이 필요”

글\_정 병 걸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및 임업인(독림가, 篤林家)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계유정난이 조선을 뒤흔들고 어린 왕 이흥위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오른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대감을 우리 광천골로 오게 해야지” 한편,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 산골 마을 광천골의 촌장 엄흥도 옹은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촌장이 부푼 꿈으로 맞이한 이는 다름 아닌 왕위에서 쫓겨난 이흥위였다.

유배지를 지키는 보수주인으로서 그의 모든 일상을 감시해야만 하는 촌장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흥위가 점점 신경 쓰이는데...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 <왕(王) 사 남(男)>지난 2월 4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누적 관람객 1,688만 명을 기록하며, 영월의 청령포(淸浦), 장릉 등 명승지가 관광의 명소로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매년 약 2천여 명 남짓이던 관광객 수가 개봉

이후 5개월간 약 52만 명이 구름처럼 모여 영월 읍내의 지역경기도 활기가 돌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영월의 청령포는 어린 나이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유배지로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고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약 600년 이상된 관음송이 있는



산림 204,241㎡(약 6만 1천여 평)의 면적을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영월군에서는 군내의 수백년 소나무 군락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기개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군목(郡木)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말에 청령포를 방문하여 관광한 바 있다.

나룻배는 강폭 약 150m 거리를 40여 명을 태우고 약 5분 소요로 왕복 중이었다. 주말이라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복잡하고 청령포를 건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제는 관광지도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나룻배에 구멍조끼는 보이나 안내방송과 기본적인 설명은 없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약 6만 여평의 소나무림과 어소(御所)의 규모에 비해 건물화재, 산불발생 또는 안전사고 시 신속한 재난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청령포를 둘러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지랴 넓은 직업병인가?

청령포 주변의 수백년 된 낙낙장송림 주변에는 어린 소나무가 군락지어 자라고 있다. 그냥 두기보다는 산림내 숲가꾸기가 필요해 보였다. 명승지의 산림도 방치보다는 관심과 손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핫플레이스’ 장소는 가치를 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개와 절개를 상징하는 우리의 향토종인 소나무는

이곳 청령포에서 약 600여 년 동안 단종을 기리며 자리를 지켜왔다. 청령포 내와 영월 서(西)강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소나무 군락지에 대하여는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거름주기, 가지치기, 썬아베기 등 숲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국가 문화 유산”으로서의 소나무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